

교육 격차 해소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제고를 중심으로

은 수 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2019. 02.

교육 격차 해소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제고를 중심으로

은 수 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i
I 배경	1
- 경제·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교육 격차	1
- 교육 격차의 개념	2
- 교육 격차 유발 요소	4
- 교육 격차 해소 대책	11
- 새로운 정책의 필요	14
II 미국의 사례	15
- 미국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 균등 제고 노력	15
- 연구단체의 노력	15
- 대학의 노력	19
- 민간단체의 노력	21
- 대입 전형 개선을 통한 노력	25
- 정부의 노력	28
III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29
1. 기회균형선발제의 지속적 확대	29
2. 진정한 공정성의 출발선 재고	32
3. 조기 발굴, 양성 및 지원 제도	32
4. 성공경로의 다양화	33
5. 기타	34
IV 결론	35
참고문헌	36

표 목차

[표 1] 교육정의지수 (김창환 외, 2012)	3
[표 2] 교육격차지수 (김흥원 외, 2008)	3
[표 3] '17년 지역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9
[표 4] 학교 소재지별 수능 영역 표준점수 및 등급 분포	10
[표 5] 정부별 교육복지 정책 개관	12
[표 6] 상향 이동률에 따른 미국 상위 10개 대학	17
[표 7] 아스펜 연구소의 Collective Impact Framework	19
[표 8] 최근 5년 간 농어촌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전형 모집비율	29
[표 9] 서울 주요 6개 대학교 재학생 소득분위 비율	30

그림 목차

[그림 1] 통계청 사회조사: 계층이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의 추이	1
[그림 2] '14-17년 소득 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6
[그림 3] 어머니의 학력 별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추이	7
[그림 4]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가정 배경	8
[그림 5] '17년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9
[그림 6] 전국 평균 대비 각 지역별 서울대 상대진학률	11
[그림 7] 기업·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본 출신 대학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 ..	14
[그림 8] '16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 출신 지역 비율	31

요 약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명제에 쉽게 동의할 만한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양극화 현상을 보였으며, 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본을 통한 재생산 구조가 공고해진 세습사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OECD 최상위권 수준의 임금 격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사교육비 격차 12배, SKY대 재학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고소득층 자녀, '17년 역대 최고치의 1인당 사교육비라는 수치 등은 우리 사회의 교육 격차와 양극화 문제에 새로운 차원의 해소 방안이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교육 격차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 균등한 기회 하에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인적자본 손실,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 유발, 사회통합의 저해 등으로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동체의 위기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도 높은 관심과 조치가 필요한 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계층 고착·양극화의 기제로 탈바꿈한 지표들을 살펴보고, 미국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정부, 대학, 민간단체의 고등교육 단계의 지원 사례를 통해 국내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한다.

분석 결과 미국은 중고등학교부터 대졸 후 취업까지 조기 발굴, 맞춤형 사후 지원 등을 통해 통합적 시스템으로 소외계층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으며, 가구소득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대입시험 SAT의 개편, SAT·제출 선택권 부여, 학생의 사회경제적 요소에 가중치를 두는 각종 선발 기준으로 공정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국내 취약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기회균형선발제의 지속적 확대 2) 조기 지원 및 양성 제도의 확대 및 강화 3)성공경로의 다양화 4)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등을 제시한다.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 투자의 격차로 나타나고, 명문대 재학생의 부유층 비율로 나타나는 계층의 고착화와 대물림이 자연스레 이어져온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왔으며 공정한 사회를 향한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을까?

교육 격차 해소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제고를 중심으로

은 수 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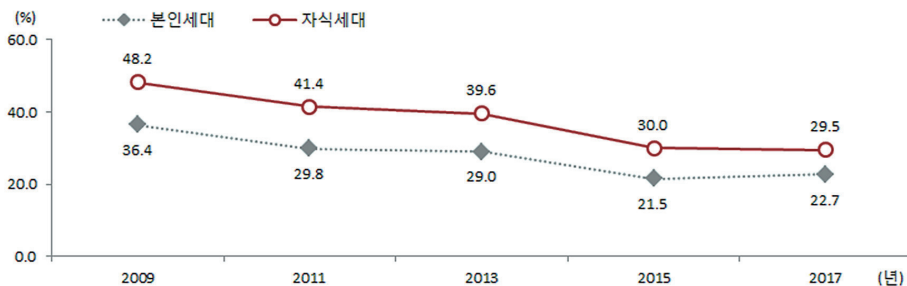
I 배경

□ 경제·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교육 격차

○ 경제·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 이동성 후퇴

- '17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의식 설문 조사' 결과,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83.4%
- 자식 세대의 계층 이동에 대한 통계청 사회인식 조사, '09년-'17년 긍정적 답변 지속적 하락
- '12-'17년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 OECD 회원국 중 2위
- '18년 3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소득 격차 13배¹⁾

〈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 〉



출처: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 2017

[그림 1] 통계청 사회조사: 계층이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의 추이

1)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 교육 격차와 계층 이동의 고착화

- 최근 교육부(2017)의 교육 격차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지역·계층간 교육 격차가 크다고 응답, 교육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우려 팽배
- 교육은 개인이 보유한 인적자본의 양과 질에 출신 배경의 영향이 작을 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으나, 영향이 클 때 계층 고착화의 수단이 될 수 있음²⁾
- 한국사회의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경로 분석 결과,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보다 자녀의 **학력**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 높아 교육은 한국의 계층 대물림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발견³⁾
- 세대 내 소득 이동성은 '0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계층 고착화 경향을 보이며 저학력계층의 소득 저하에 주로 기인⁴⁾
- 70년대 중반 이후 평준화조치 및 과외금지 조치로 기회 형평성이 높은 가운데 교육은 한국 사회 내 계층 상승의 유일한 탈출구로 인식되었으나, 90년대 후반 후로 사교육이 보편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일어나며 현재 계층 고착화/양극화의 주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음

□ 교육 격차의 개념

○ 교육 격차의 정의

- 교육 격차의 학문적 정의는 다양하나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지거나 성과가 나타나 상대적 빈곤 등 사회갈등의 요인을 초래하는 현상(허은정 외, 2012) 또는 학력격차, 교육결과의 격차로서 집단 간에 나타난 교육성과 불균형 등을 의미(김양분 외, 2010)

2) 김희삼, 사회이동성과 교육 격차: 진단 처방,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2017

3) 여유진,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 28집 제2호, 2008

4) 김용성, 세대 내 소득이동성에 대한 연구 학력계층을 중심으로 김용성 이주호 편, 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연구보고서, 2014-08, KDI

- 교육 격차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과정, 결과의 영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관련 지표 등이 개발된 바 있음

지표영역	소영역	지표
교육의 기회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 영역	취학률 중도탈락률 NEET 비율 GDP 대비 공교육비 사교육 기회 격차
	육아교육 지원 영역	취학률 GDP 대비 공교육비 사교육 기회 격차
교육의 과정	지원적 학습환경 영역	교사-학생 비율 교사-학생관계 교육적 학습 문화
	공정한 경쟁 영역	×
	취약계층 지원영역	×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영역	통합교육 체제 사회경제적 배경과 성취도와의 관계 취약계층 가운데 고성취 학생 비율
교육의 결과	시민적 자질 영역	교육 이수율 시민적 자질
	공정한 삶의 기회 및 삶의 질 영역	학력별 고용율 학력별 임금 격차 삶의 질(만족도)

출처: 경기도교육격차지표 개발 연구, 2015

[표 1] 교육정의지수 (김창환 외, 2012)

영역	내용
배경	-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지역의 계층, 소득(학부모의 소득, 학력, 직업 등), 사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수, 문화시설, 재정자립도 등
투입	-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요인으로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학교 규모, 교사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도서보유수, 기초생활수급자수, 학생 1인당 발전기금 등
과정	-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교사-학생의 활동 교사와 학생 상호작용, 수업방법과 내용, 교수학습 프로그램, 교육과정운영 방법 등
산출	- 학교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것 학업성취도, 기초학력부진학생의 비율, 학습흥미도, 학업자아개념,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 수업에 대한 만족도, 진학률, 취업률 등

출처: 경기도교육격차지표 개발 연구, 2015

[표 2] 교육격차지수 (김흥원 외, 2008)

□ 교육 격차 유발 요소

○ 개인의 타고난 재능 외에 국내 교육격차의 핵심적 원인은 크게 경제적 자본(부모의 소득, 사교육, 교육 자원 등)과 사회적 자본(부모의 학력, 부모의 기대 및 지원, 가정 환경 등)으로 분류 가능

- '00년-'18년 국내 교육격차 실증논문 53편을 분석한 학업성취격차 원인은 다음과 같음 ⁵⁾

- 사교육 참여정도
- 부모의 학력 · 직업 · 소득 차이
- 부모의 교육적 기대 및 지원
- 편부모 및 다문화 가정 여부
- 학교의 교육적 풍토 및 여건의 차이
- 학교의 SES(사회경제적지위) 차이
- 학교 설립유형 및 목적유형의 차이
- 학교규모의 차이
-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 차이
- 거주지역의 사회자본의 차이
- 지역 간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 정도 등

○ 이 중 결정적 원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교육 참여 정도, 부모의 교육적 기대 및 지원의 차이로 분석

- 가정배경에 따라 학업성취도 등의 인지적 영역 뿐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자아 존중감, 학습 태도 등 비인지적 영역에 영향
- 소득보다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더 잘 예측

5) 박주호 외., 교육격차 실증연구의 체계적 분석,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2018.2

○ 부모의 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⁶⁾ :

- 사교육비
- 자녀의 4년제 대학진학률
- 수능성적 1-2등급 비율
- 상위권 대학 진학 가능성
- 임금

* 상위 1-10위권 대학 진학률, 고소득층 자녀가 8.6배 높다는 연구 결과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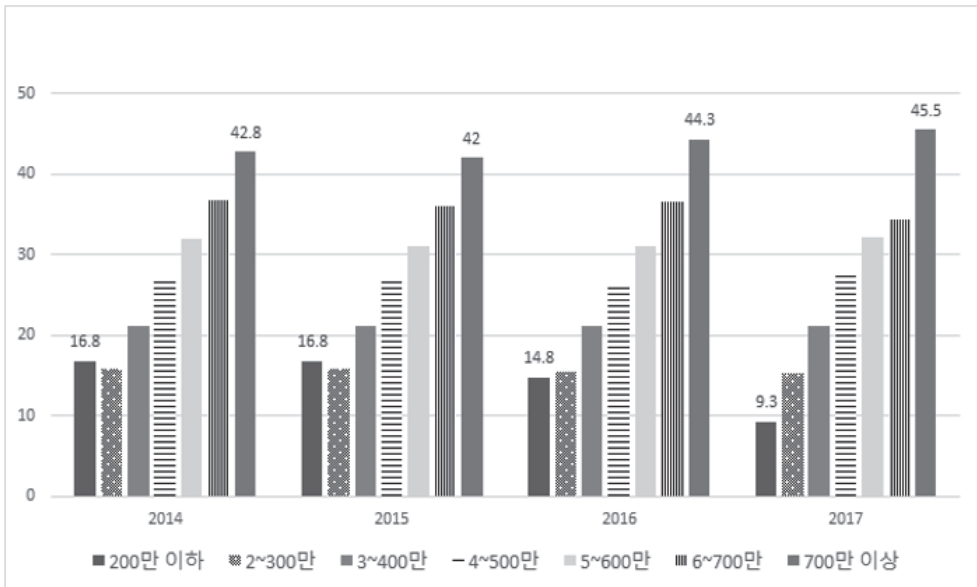
* 사교육비 5분위 학생 > 1분위 학생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 약 2배, 주요 10개 대학 진학률 약 2.2배라는 연구 결과⁸⁾

〈왜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 하나?〉를 저술한 신명호(2015)의 질적 연구에 따르면, 고학력 전문 직종에 위치하는 높은 계층은 낮은 계층에 비해 학벌주의 가치관이 강한 성향을 나타냈으며, 이것이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 열망으로 나타나 부모들이 조기에 깊숙이 자녀 교육에 관여하고 장기계획을 세우며, 자녀가 학업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태도를 갖도록 일상적인 의식화를 시도하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부모의 의식화는 자녀의 성격과 상호작용하며, 자녀의 교육열망과 학업성취도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낮은 계층은 동질한 집단 안에 있다 보니 학력이나 학벌의 영향을 체감하기 어려우며, 부모의 교육열망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자연스레 부모의 관여도 덜하여 자녀의 낮은 학업성취도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6) 최필선 · 민인식,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3호, 2015..9

7) 오호영,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과제, 청년일자리정책 포럼 자료집,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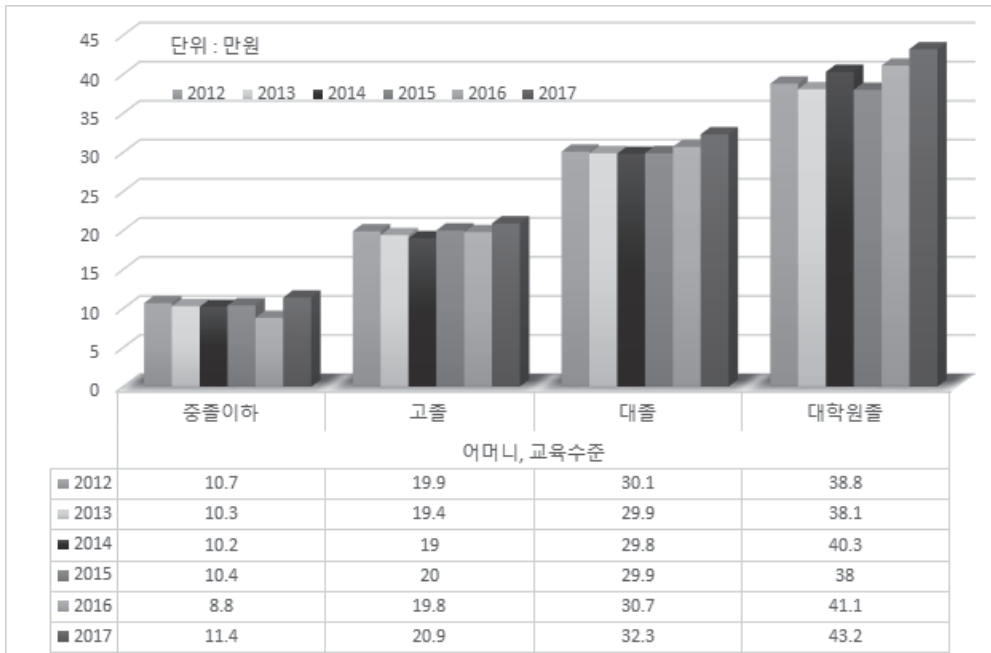
8) 마강래, 저출산 문제와 교육 실태: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2016.12



출처: 통계청, '14-'17 사교육비 조사 재구성
(최저 2백만원 이하부터 표기)

[그림 2] '14-17년 소득 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 '16년 소득 7백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44만 3천원으로 백만원 미만 가구의 4만 9천원보다 8.9배
- '17년 소득 7백만원 이상 가구 월평균 사교육비, 45만 5천원으로 2백만원 미만 가구의 9만 3천원보다 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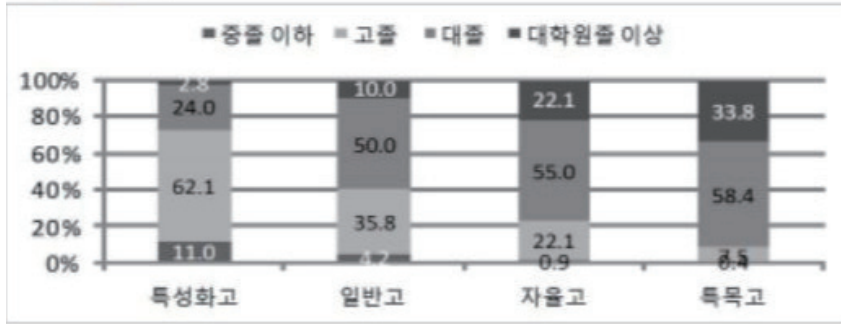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7,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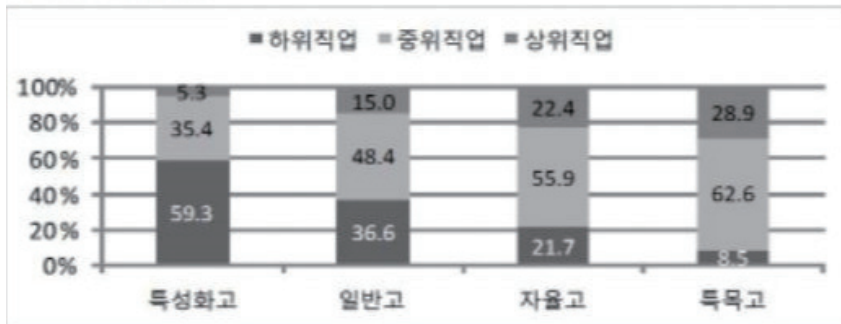
[그림 3] 어머니의 학력 별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추이

- '16년 중졸 이하 학력의 어머니는 월 사교육비로 8만 8,000원을 지출한 반면, 대학원 졸 학력의 어머니는 41만 1,000원 지출
- '17년 중졸 이하 학력의 어머니는 월 사교육비로 11만 4,000원을 지출한 반면, 대학원 졸 학력의 어머니는 43만 2,000원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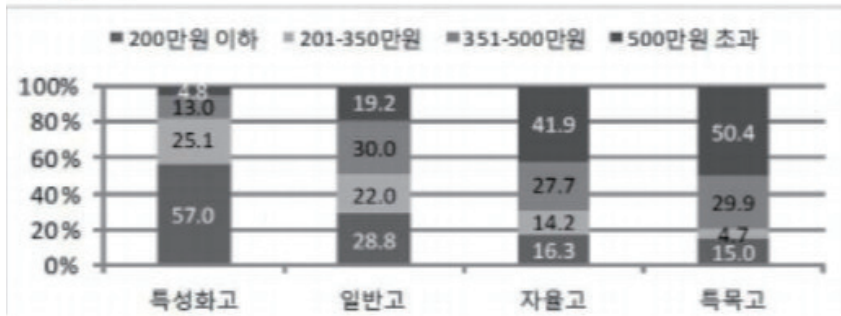
가. 아버지 학력



나. 아버지 직업군



다.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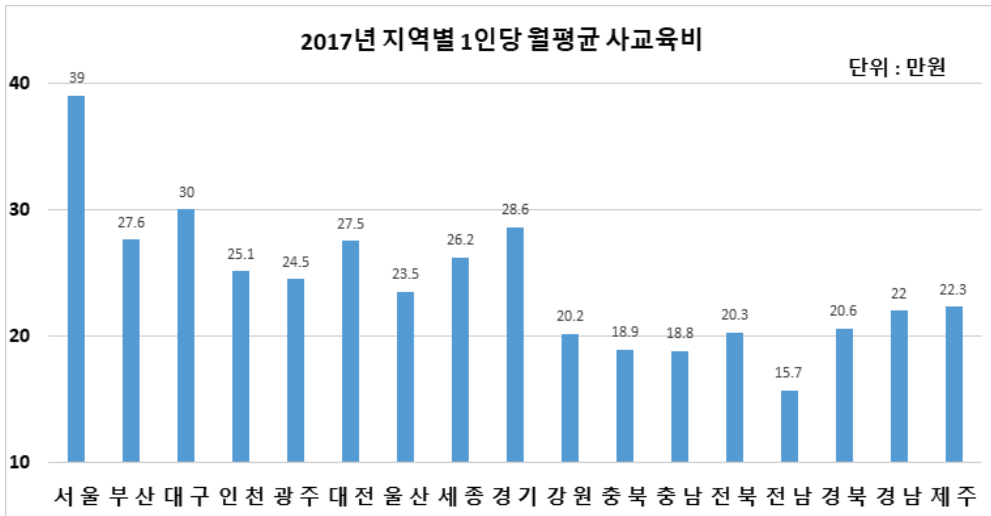
출처: 세대 간 계층 이동성과 교육의 역할, 김희삼, 2014

* 서울교육종단연구(SELS) 2010년 자료 이용 김희삼 계산

[그림 4]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가정 배경

-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학력, 직업군, 가구소득 비율.
특성화고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가장 어렵고, 특목고로 갈수록 아버지의 고학력, 고소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부모의 소득, 학력 외에도 지역 별로 나타나는 교육 투자 및 결과의 격차



출처: 통계청, 2017, 재구성

[그림 5] '17년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17년 서울이 39만원으로 학생 1인당 가장 높은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 지역은 15만 7,000원으로 서울의 절반 이하를 나타내고 있음

특성별	2017				
	평 균 (만원)	초등학교 (만원)	중학교 (만원)	고등학교 (만원)	일반고 (만원)
전체	27.1	25.3	29.1	28.4	33
대도시	31.7	28.9	33.6	34.6	40.8
서울	39	34.1	41.6	44.3	51.5
광역시	26.8	25.4	28.2	27.9	33.2
대도시 이외	23.9	22.9	25.9	23.9	27.6
중소도시	26.2	24.5	29	26.4	29.9
읍면지역	17.7	18.7	16.7	16.7	20.4

출처 : 통계청, 2017

[표 3] '17년 지역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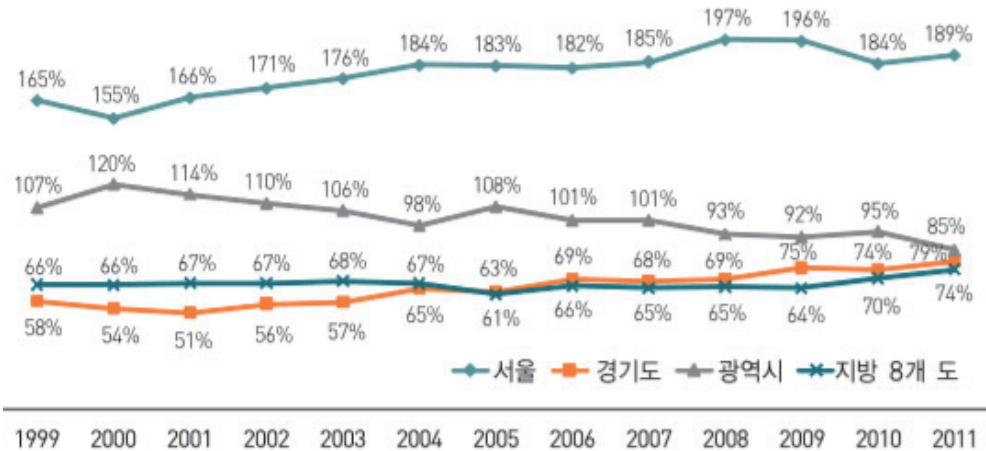
- 표 3의 '17년 서울과 읍면지역 간의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21만 3,000원, 대학 진학 단계에 가까워지는 고등학교(일반고)에서는 무려 31만 1,000원의 월평균 차이(51.5 vs 20.4)를 기록

영역	학교 소재지	표준점수		등급(%)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국어	대도시	99.6	19.6	3.7	6.5	11.4	16.7	20.9	18.7	11.6	6.9	3.5
	중소도시	98.0	19.9	3.0	5.8	10.7	16.3	20.7	18.9	12.4	8.0	4.3
	읍면 지역	94.8	20.9	2.9	5.1	8.7	13.8	18.9	19.4	14.5	10.6	6.1
	전체	98.3	20.0	3.3	6.0	10.7	16.1	20.6	18.9	12.3	7.8	4.2
수학가	대도시	101.5	18.3	6.1	7.7	10.0	19.9	19.2	18.5	11.2	5.6	1.8
	중소도시	98.0	19.8	4.7	6.6	8.7	17.3	18.7	18.7	14.0	8.6	2.8
	읍면 지역	92.0	21.3	3.4	5.1	6.6	13.5	14.8	18.5	19.2	13.9	4.9
	전체	98.9	19.6	5.2	6.9	9.0	18.0	18.5	18.6	13.4	7.9	2.6
수학나	대도시	100.0	19.6	4.0	10.1	10.2	16.0	21.4	16.9	11.0	6.8	3.6
	중소도시	98.8	19.3	3.2	8.8	9.7	15.7	22.0	18.2	11.5	7.2	3.7
	읍면 지역	96.6	19.0	2.9	7.0	7.9	13.7	22.9	21.0	12.5	7.6	4.4
	전체	99.0	19.4	3.5	9.1	9.7	15.5	21.8	18.0	11.4	7.1	3.8
영어	대도시	99.9	19.6	4.3	6.3	11.8	18.4	19.5	17.8	11.9	6.3	3.8
	중소도시	97.5	19.6	2.9	5.1	10.5	17.6	19.7	18.6	13.5	7.5	4.6
	읍면 지역	93.6	20.3	2.6	4.0	8.2	14.2	17.5	19.8	16.7	10.5	6.5
	전체	98.1	19.8	3.5	5.5	10.8	17.5	19.3	18.4	13.2	7.3	4.5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표 4] 학교 소재지별 수능 영역 표준점수 및 등급 분포

- 각 수능 영역별로 대도시의 평균 점수가 높고, 읍면 지역은 낮으며 대도시의 1,2등급 비율과 읍면 지역의 8,9등급 비율 등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볼 수 있음



출처 : 대학 진학의 격차 확대와 기회 형평성 제고 방안 (김영철, 2011)

* 상대진학률은 각 지역별 고등학교 졸업생 만 명당 서울대 입학생의 수를 전국 평균 고등학교 졸업생 만 명당 서울대 입학생의 수로 나눈 값

[그림 6] 전국 평균 대비 각 지역별 서울대 상대진학률

- 서울 지역의 서울대 상대진학률은 '00년부터 꾸준히 상승, '11년 189%를 기록한 반면 6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의 85%, 지방 8개 도는 74% 기록

□ 교육 격차 해소 대책

○ 역대 교육 격차 해소 정책

- 국내 교육 격차 개선정책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교육복지⁹⁾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왔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서민층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필요성의 확대로 시작
-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만5세 무상교육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등 취약 계층 지원 시작,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기초학력 달성을 통해 국민기초교육수준 달성'(교육인적자원부, 2004)의 정책 목표 수립

9) "적어도 한 사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교육에서의 최소 기준에 모든 국민이 도달할 수 있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처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각자 필요한 교육을 받아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state), 혹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자원(public service)"로 정의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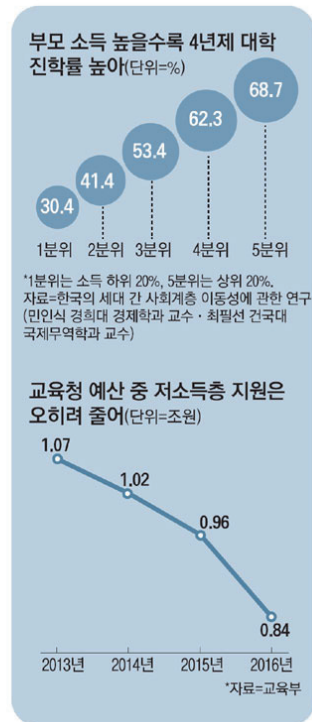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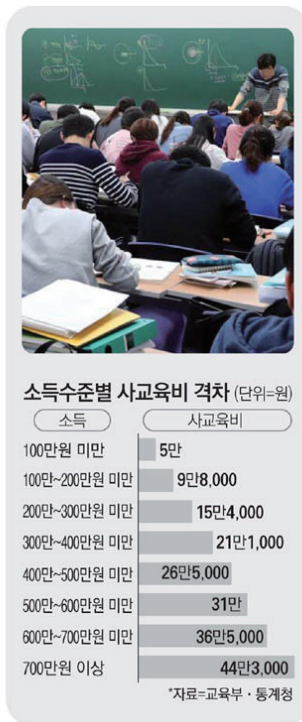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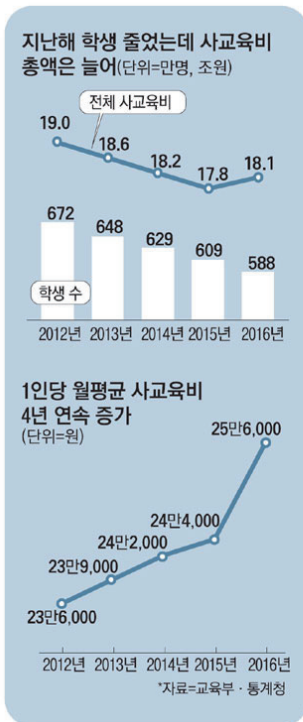
- '08년 발표된 교육복지종합 대책 이래 '17년 3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하는 첫 종합적 교육 복지 방향 발표
- '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대입 지원, 사회취약계층 교육 지원,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등을 명시

시 기	특 징	주요 정책
문민정부 및 그 이전 (~1997)	* 전반적인 복지수준도 낮고, 일부 대책에 한정 -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	- 장애아, 중도탈락자, 학습부진아, 귀국학생에 대한 대책 수립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1998.2~2003.2.)	* 외환위기 이후 중산·서민층 자녀 교육지원 필요성 증대 - 교육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	- 만5세 무상교육 실시(1999)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실시(2000)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 (2003.2~2008.2.)	* 양극화 문제가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 소득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 - 교육복지정책이 양적으로 확대	- 도시 저소득층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시작(2003) - 만 3~4세 유아교육비 지원(2004) - 중학교 무상교육 완성(2004) - 저소득 학생 대상 정부장학금 지급(2005) - 대안학교 법제화(2004)
이명박 정부 (2008.2~2013.2.)	*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취약계층 확대, 사회양극화 문제 심화 - 저소득·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학력격차 해소 지원의 체계화, 교육복지 사각지대 보완 등 교육복지정책 지속	- 중학교 무상교육 대폭 강화(2008) -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2008) -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계 구축(2008)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법제화(보통교부금으로 전환, 2011) - 누리과정 도입(만5세, 2012)
박근혜 정부 (2013.2~2017.2.)	*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저성장 기조로 복지재정 부담 주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갈등 심화 - 누리과정 확대, 공교육 정상화법 제정,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고졸취업 활성화 등 교육복지정책 지속·확대	- 누리과정 확대(만3~5세, 2013) - 교육급여 개편(2013) - 맞춤형 반값등록금 - 학업중단예방 지원

출처 :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7

[표 5] 정부별 교육복지 정책 개관

- 교육 격차의 주범인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06년 방과후학교, '10년 수능 문제의 70% ebs 연계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인 사교육 대체의 실효성은 연구 결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18년 9월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2018 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2018)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국내 학력 격차는 10년 전 대비 더욱 심화¹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7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 기록
- 지금까지 시도된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은 국내 무한교육경쟁 시스템 속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바로잡기에는 부족했음을 입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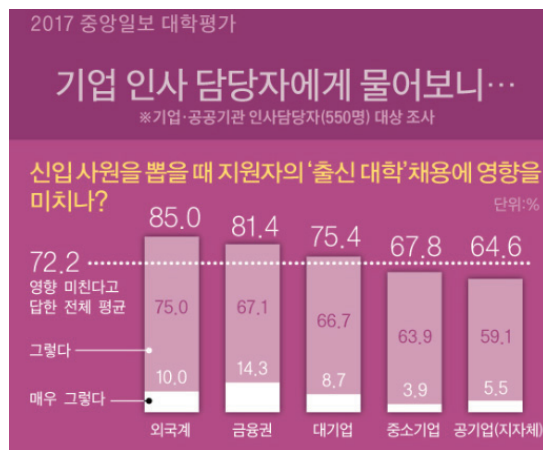


출처 : 매일경제, 2017.3.14. '개천 용' 막는 교육 양극화...국가 역동성 훼손 악순환

10) 금수저 對 흙수저...교육격차 더 벌어졌다, 매일경제, 2018.09.3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10089>

□ 새로운 정책의 필요

-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소(학력, 소득)에 따라 자녀의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전세계적 현상이나, 한국의 경우 교육이 소득 수준과 직업 지위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 특별히 상위권대학의 졸업장이 한정된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수준을 크게 좌우하는 현상이 문제의 일차적 핵심
- 지나치게 경직된 대학 서열, 학벌 프리미엄¹¹⁾, 명문대학을 나와 대기업·공기업 등의 취직 또는 고시 합격 등을 주류적 성공 경로로 여기는 인식과 과도한 임금 격차의 결합으로 세계 최상위 수준의 사교육비로 대변되는 교육열 → 고소득층의 교육 투자 → 교육 격차 증가 → 계층 고착화 → 사회 이동성 저하 → 불평등도가 높은 사회 → 사회 갈등, 불안정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상위권 고등교육 진학 기회를 주목하여 이들을 위한 진학 기회 확대 및 지원 개선 방안을 미국 사례의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출처 : 중앙일보 2017.10.27.

[그림 7] 기업·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본 출신 대학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

8) 기업 인사담당자 72% "채용시 출신대학 영향 미쳐", 중앙일보, 2017.10

<https://news.joins.com/article/22056767>

2030 "여전히 학벌-학력 때문에 취업 어려워" 동아일보, 2018.5.1.

<http://news.donga.com/3/all/20180501/89876798/1>

II 미국의 사례

□ 미국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 균등 제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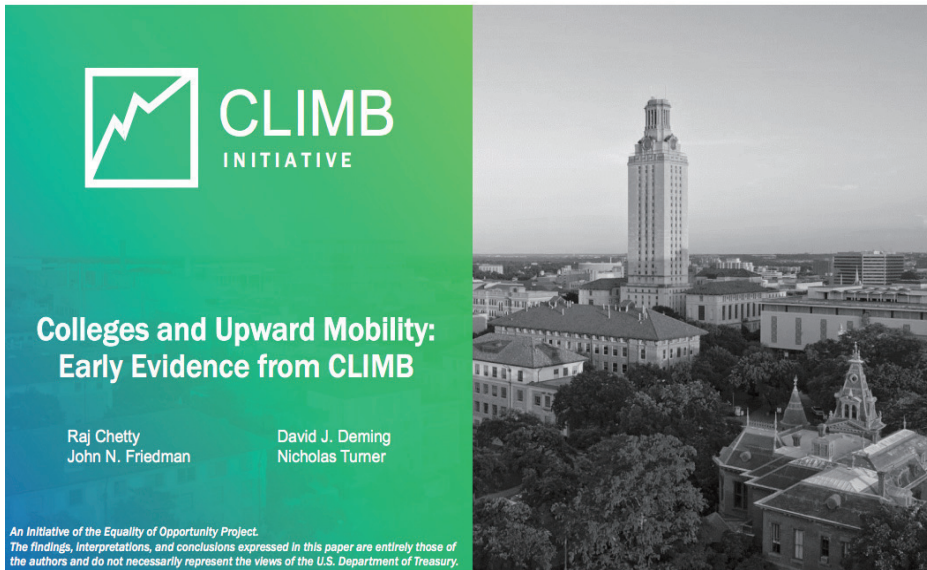
- 평준화된 체제와 등록금 면제 등으로 고등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은 유럽 대학에 반해, 시장주의를 받아들인 미국은 지난 40년간 지속적인 소득 불평등 상승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증가하면서 정부, 대학, 민간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 기관 진학 단계의 사회경제적 다양성 확보에 최근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규모의 연구, 컨퍼런스 개최, 대학 담당자들의 모임 등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 진학 기회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학 입학 선발 기준과 방식의 개선, 대입 전형 개선, 대학 자체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 비영리 단체의 우수 저소득층 학생 조기 발굴 및 후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운영하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연구단체의 노력

○ Opportunity insights

- 미 하버드대의 Opportunity insights(<http://opportunityinsights.org>)는 빌게이츠 재단 및 美 대학 협의회 (College of Board)의 후원과 미국 인구조사국 등과의 협력으로 빅데이터를 활용, 국가 규모의 교육 형평성 및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조직으로 '14년부터 언론이 주목하는 여러 연구 결과를 내고 있음
- 하위 프로젝트 Climb Initiative¹²⁾는 미국 200여개 대학과 고등교육 분야의 경제학자들이 연대하여 계층이동을 성공적으로 돕는 대학과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17년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방안에 관한 첫 컨퍼런스 개최

12) <http://climbinitiative.org>



- 주목할 만한 연구로 대학의 사회 이동성 기여 척도를 평가하는 “기회의 평등 프로젝트(The Equality of Opportunity project)”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1) 미국의 어느 대학이 사회 이동성에 가장 기여하는가?
- 2) 저소득층 학생의 계층 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 대학은?
- 3) 위 대학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입학률을 늘릴 방안은?

- 이를 밝히기 위해 1999-2013 사이의 3천만 명의 미국 대학 졸업생¹³⁾의 상향 이동률(upward mobility rate)*을 산출하고 요인 분석 중에 있음

* 상향 이동률(upward mobility rate)= Access rate(소득 하위 20% 계층의 입학 생 비율) X Success rate(졸업 후 소득 상위 20%로 진입한 학생 비율)

13) 80-82년생의 15-19세 기간 동안 부모의 세전 가구소득(pre-tax household income)과 졸업 후 30대 중반의 소득을 기초로 산출

Top 10 Colleges by Mobility Rate (from Bottom to Top Quintile)

Rank	Name	Mobility Rate	= Access	x Success Rate
1	Cal State University – LA	9.9%	33.1%	29.9%
2	Pace University – New York	8.4%	15.2%	55.6%
3	SUNY – Stony Brook	8.4%	16.4%	51.2%
4	Technical Career Institutes	8.0%	40.3%	19.8%
5	University of Texas – Pan American	7.6%	38.7%	19.8%
6	City Univ. of New York System	7.2%	28.7%	25.2%
7	Glendale Community College	7.1%	32.4%	21.9%
8	South Texas College	6.9%	52.4%	13.2%
9	Cal State Polytechnic – Pomona	6.8%	14.9%	45.8%
10	University of Texas – El Paso	6.8%	28.0%	24.4%

출처: https://opportunityinsights.org/wp-content/uploads/2018/03/coll_mrc_summary.pdf

[표 6] 상향 이동률에 따른 미국 상위 10개 대학

- 연구 결과 아이비리그 대학은 60% 가량의 성공률(소득 상위 20%로 진입한 비율)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뉴욕주립대 스톤브룩 캠퍼스 등의 중위권 대학(U.S. News & World report 80위) 역시 51% 정도의 비슷한 수치 기록. 아이비플러스대학¹⁴⁾의 저소득층 학생 비율(4%)과 뉴욕주립대 스톤브룩 캠퍼스의 저소득층 학생 비율(16%)을 고려할 때, 소득 하위 20%를 상위 20%로 이동시킨 상향 이동률은 뉴욕주립대가 아이비플러스 대학보다 높음 (8.4% vs 2.2%)
- 상기 연구의 질문과 결과 산출 방식은 국내 상위 5개 대학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시간 당 42%의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¹⁵⁾와, 대학서열의 임금효과가 20위권 내에 집중되며 60위권 이하 대학은 차이가 없고¹⁶⁾, 1~10위 대학 출신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중위임금이 21위 이하

14) 아이비리그 대학(브라운, 다트머스, 콜롬비아, 코넬, 하버드, 펜실베이니아, 예일, 프린스턴) + 듀크, MIT, 시카고, 스탠포드 대학

15) 장수명, 대학교육의 경제학, 노동정책 연구, pp.47-79, 2002

16) 오호영, 대학서열화와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8,

4년제 대학 출신보다 90~110만원 많다는 연구 결과¹⁷⁾가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에 여러 시사점 제공

○ American Talent Initiative

- 아스펜 연구소(Aspen Institute)¹⁸⁾의 미국 저소득층 인재 프로젝트. 미국 269개 대학과 협력을 맺고 있으며 목표는 2025년까지 5만 명의 중·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등록과 졸업 지원. 블룸버그 재단¹⁹⁾, ITHAKA S+R 등의 고등교육 혁신 단체와 협력하여 대학교육 우수성 제고 프로그램(College Excellence Program)의 일환으로 '16년 12월 설립
- 프로젝트 참여 대학들은 캠퍼스의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개선을 목표로 하는 'Collective Impact Framework'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입학 전형과 지원 방안의 전략 및 목표를 공동 구상
- 4년제 대학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미국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총장 대상의 학생 학습 및 취업 성과를 지원하는 10개월 간의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최근 예일대, 워싱턴대, 웨이크 포리스트대, 조지아 공대 등이 중·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정서적·학업적·재정적 지원 공약을 담은 계획안 제출

No. 2, pp. 8~13, 2015.3

17) 오호영,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18) 1946년 워싱턴 D.C. 본부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 싱크탱크. 가치기반의 리더십과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초당파적 포럼을 모토로 삼고 있음. 정책 프로그램, 세미나, 컨퍼런스, 리더십 개발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카네기 재단, 포드재단, 록펠러 재단, 개별 기부금 등의 지원을 받음 <https://www.aspeninstitutece.org>

19) Bloomberg Philanthropies,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의 자선 활동으로 시작된 120개국 기반의 자선 재단. 예술, 교육, 환경, 정부 혁신 및 보건의 변화를 목표로 2015년에 5억 달러의 기부 활동 운영

Yale university 1세대 신입생 정원 150명 확대 펠 장학금 ²⁰⁾ 수혜자 225명 확대	University of Washington 2025년까지 매년 중·저소득층 신입생 125명 추가 모집
Wake Forest University 펠 장학금 수혜자 50% 확대 재정보조 장학금 수혜자 25% 확대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재정보조 장학금 30% 증액

출처: <https://highered.aspeninstitute.org/american-talent-initiative/>

[표 7] 아스펜 연구소의 Collective Impact Framework

□ 대학의 노력

○ 뉴욕시립대학교(CUNY)의 SEEK 프로그램

- SEEK(Search for Education, Elevation and Knowledge)²¹⁾는 1964년부터 시작된 뉴욕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의 저소득층 장학생 프로그램으로 평균 소득 하위 20%의 학생들에게 기존 학생보다 낮은 입학 성적의 기준으로 입학 기회를 부여하며, 11개 캠퍼스에서 현재까지 25만 명의 장학생 배출
- 지원 자격은 뉴욕시립대의 성적 선발 기준인 Academic Index(고교 학점, SAT, 이수한 수업)이하의 학업 성적이며 4인 가족 기준 \$4만5천 이하의 소득 수준, 뉴욕 거주 기준임
- 입학 전 6주간의 예비 교육 과정인 여름학교를 거치며 입학 후 개인/소그룹 학업 지도 서비스 제공
- 재정적 지원 외에 졸업 전까지 학업 및 진로, 대학 생활 전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카운슬러 배정
- 연구 결과 SEEK 장학생들은 일반 학생들 대비, 졸업률과 졸업 후 임금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임²²⁾

20)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에게 주는 국가 장학금으로 연간가구소득 \$5만 이하에 해당될 경우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연간가구소득 \$2만 이하의 학생들이 주로 수혜

21) <http://www2.cuny.edu/academics/academic-programs/seek-college-discovery/>

22) http://www2.cuny.edu/wp-content/uploads/sites/4/page-assets/academics/academic-programs/seek-college-discovery/SEEK-CD-2015-16-annual-report_WEB.pdf

○ 프린스턴 대학교의 PUPP(Princeton University Preparatory Program)²³⁾

- PUPP는 프린스턴 대학이 운영해온 저소득층 고교생의 조기 발굴 및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으로 뉴저지 지역의 고등학교들과 협력을 맺고 9학년 저소득층 학생 중 리더십 잠재력, 작문 능력, 대학 진학 의사 및 면접 등을 기초로 매년 24명의 장학생 선발
- 선발된 장학생들은 고교 3년 간 프린스턴대 캠퍼스에서 운영되는 약 6주 간의 대학 예비 과정 여름학교를 통해 예술, 작문, 문학, 과학, 수학 강의와 대입 준비반 등의 학업 지원을 받게 됨. 이외에도 리더십 개발 및 공동체 활동의 수련회, 요가, 마음 수련 등 전인적 심신 계발 기회 제공
- 대학 캠퍼스 투어, 프린스턴 대학원생들이 가르치는 방과 후 수업(작문 및 토론) 외에 문화 공연 관람(1년 6-7회)을 통한 교양 활동, 동료 관계 및 멘토링 등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재정, 건강 관리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고3 단계에서는 학부모와 함께 하는 대학 진학 상담 제공
- 장학생은 평균 고교 상위 10% 내의 성적을 거두며 미국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인 10% 대비 72%의 대학 진학률을 보임
- 대학 진학 후에도 장학생 동문회를 통한 대학 생활 및 취업 성공을 위한 지원
- 최근 프린스턴대는 연간가구소득 \$6만5천 이하의 학생 등록금 전액 면제 방안을 도입하고 2022년 신입생의 20%를 저소득층, 15%를 1세대 학생으로 선발²⁴⁾. '18년부터 커뮤니티 컬리지 편입생 10-12명 선발.

○ 프린스턴 대학교의 SIPF (Scholars Institute Fellow Program)²⁵⁾

- '00년부터 시작된 프린스턴대의 저소득층, 1세대 학생, 편입생의 대학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멘토링, 사회적 네트워크, 학업 지원 등을 제공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의 소속감과 자기계발 기회 향상
- ✓ 멘토링 그룹: 저소득층과 1세대 학생 등이 대학 진학 후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고충과 조언을 나눌 수 있는 주 1회 소규모 그룹 모임

23) <https://pupp.princeton.edu/>

24) <https://admission.princeton.edu/how-apply/admission-statistics>

25) <https://sifp.princeton.edu/>

- ✓ 워크숍 및 행사: 한 학기 최소 4회, 실질적인 학업 및 진로 조언 (교수에게 이메일 작성, 추천서 요청, 인턴십 지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과 재정 상담, 심리 상담 제공. 교수진과의 독서 모임, 대학원생과의 교류 모임, 연말 동문 모임 등 다양한 네트워킹의 기회가 있음
- ✓ 커뮤니티: 일일 여행, 관광지 방문 등 여러 공동체 활동을 통한 관계 형성과 소속감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

○ FGLI (First-Generation, Lower-Income) Consortium²⁶⁾

- 1세대²⁷⁾, 저소득층의 약어를 뜻하는 ‘FGLI’ 컨소시엄은 미국 상위권 대학의 교직원 및 행정 담당자들이 저소득층 및 1세대 학생들의 대학 진학부터 졸업까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전국 규모의 단체
- '17년 노스웨스턴 대학에서의 첫 모임을 시작으로, 대학의 취약계층 학생을 돕는 리더십, 전문성, 자원 등을 공유하는 연례 컨퍼런스와 하계 콜로키엄 개최
- 컬럼비아, 프린스턴, 다트머스, 코넬, 시카고, 조지타운, 브라운, 존스홉킨스, 노스웨스턴, 윌리엄스 대학의 학생지원팀 학장들이 모여 컨퍼런스 기획팀 구성
-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모범 지원 사례와 제언 등을 도출하여 대학, 비영리단체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컨설팅 제공

□ 민간단체의 노력

○ SEO (Seizing every opportunity)

- 1963년 투자 은행가 Michael Osheowitz가 취약계층 및 소수인종 학생들의 명문대학 입학 지원을 위해 시작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55년 간 만3천명의 장학생 배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과정까지 8년 간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업 프로그램으로 샌프란시스코/뉴욕에 기반²⁸⁾
- 지원 자격은 샌프란시스코/뉴욕의 공립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GPA 백분

26) <https://www.fgliconsortium.org/>

27) *First generation student (1세대): 집안 내 첫 대학 진학자

28) www.seo-usa.org

- 을 70% 또는 2.0의 성적. 사립고교, 특수목적고 등의 재학생은 지원 불가
- SEO 장학생들은 8학년(한국의 중 3) 단계에서부터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 지도, 멘토링, 맞춤형 상담 등이 제공됨
- 고교 3년 반 동안 종일 수업제 운영 방식의 토요 아카데미(Saturday Academy)와 한 달 간의 여름 학교(Summer camp)를 통해 수학,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등 720시간 분량의 수업, 매주 진행되는 세미나 형식의 방과후 수업, 소규모 과외를 지원받음
- 고 2 단계에서는 SAT 전략 강의와 1:1 멘토링을 지원하며, 고3 단계에서는 각 학생을 위한 맞춤형 대학 안내 및 장학금 지원
- 장학생들의 SAT 평균 성적은 전국 저소득층 학생들 뿐 아니라 고소득층 학생들의 SAT 평균 성적을 상회. SEO 장학생 100%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며, 75%는 상위권 대학 진학
- 장학생들의 전문 확대와 리더십 함양을 위해 고2 여름 방학, 2주에서 8주 간의 해외 연수 제공. 지역 봉사, 문화 교류, 언어 연수 중 택일하여 협력 기관을 통해 전세계 파견
- 대학 예비(Pre-college)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해당 대학 교수의 지도 하에 대학과목 선이수와 대학 캠퍼스생활 사전 경험 제공
- 외부 파트너 기관을 통해 각종 체험 프로그램(여름 캠프, 야외 캠프, 창업가 캠프 등)제공
- 고등학생에게도 다양한 분야의 공공 기관 등에서의 인턴십 기회 연결
- 대학 진학 후 학업 및 진로 상담, 1:1 지원, 세부적인 취업 코칭(모의 면접, 이력서 수정 등)을 포함한 진로 지도 제공
- SEO와 파트너십을 맺은 60대 포춘 상장 기업²⁹⁾의 인턴십 기회 제공. 사전 교육과 업계 리더 및 동문 장학생 등과의 네트워킹 이벤트 지원

○ Jack Kent Cooke Foundation

- 잭 켄트 쿡 재단은 저소득층 학생 관련 연구 및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29) Accenture, Bloomberg, United Airlines, Citigroup, Ford Foundation, Bank of America 등 다수

맞춤형 장학금 지원과 학업지원을 제공하는 청년 장학생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교육의 형평성 확보에 탁월함을 보인 대학에 매년 10억원 가량의
상금과 함께 Cooke Prize for Equity in Educational Excellence 라는
명칭의 상을 수여

- 장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자가 각 주의 대학과 연계된 지역 인재 센터
(talent center)를 통해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인재 선발 시험을 치르면
중학교 2학년부터 통합적 교육 지도와 재정적 지원 수혜

선발 기준: 학업 성적, 수상 실적, 학습에 대한 열의, 연간 \$9만5천 이하의
가구소득, 끈기, 리더십, 봉사 정신

혜택: 각 장학생은 중고교 기간 동안 담당 지도 간사를 배정받으며 간사는
학업 지도 외에 학생과 가족의 각종 필요를 파악하여 교육적 기회, 자원
을 안내하고 학생과의 정기적 연락과 가정 및 학교 방문 실행. 각 학생의
개인적 재능을 진단하고 학교, 가정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의 진로 목표
를 실현할 수 있는 맞춤형 조언 제공. 이 외에도 고교 선택 안내, 여름학
교 프로그램, 컴퓨터 및 기타 학습 기술, 과목 별 전문 학습 지원, 장학생
네트워킹, 진로 멘토링, 대학 지원 상담 및 안내 등의 혜택 제공

- '16년 재단이 발간한 'True Merit' 보고서³⁰⁾는 대입에서 인종 기반의 소수
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금지된 주(州)의 대학들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도입한 대입 전형안 소개 :

- 입학 사정 단계에 SES 요인의 가중치 부여
- 8개 주에서 저소득층과 노동자 계층 가정의 학생을 위한 입학 우선
선발 기준(admissions preferences) 도입
- 학업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점수 부여:
빈곤 지역, 한부모 가정, 저소득 계층, 1세대 입학자, 가정에서 쓰는 언어
(모국어/외국어), 고등학교의 빈곤 수준, 고등학교의 평균 SAT/ACT 점수
예) UCLA 로스쿨의 경우, 지원자의 사회경제적 계층(부모의 학력, 소득 등)과 지역 수준(한부

30) <https://www.jkcf.org/research/true-merit-ensuring-our-brightest-students-have-access-to-our-best-colleges-and-universities/>

모 가정 비율, 기초수급자 비율, 고교 졸업 미만의 학력 비율로 평가되는)을 반영하여 선발한 결과 1세대 진학자 수 3배 증가, 흑인 학생의 합격률 11.3배 증가

- 지원자의 가정 및 학교 환경을 고려하는 포괄적 입학사정(holistic review) → 명문의 기준이 아닌 취약 배경을 배려하는 기준
- 지원자의 가정과 학교 배경, 받은 지원의 수준, 극복해야 했던 장애 사항 고려
 - 예) 버클리대는 입학사정관들에게 학교별 데이터를 제공하여 학생의 학부모 직업, 출신 고등학교의 빈곤 수준 및 수능 평균 점수 등으로 불리한 여건을 참작하도록 함. 입학사정관들에게 상기 정보를 공개한 결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합격률 증가
- 비율 플랜(percentage plan) - 각 주 고교의 상위권 학생들에게 일정 비율로 거점 주립대 입학 허가
 -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도입한 고교 상위권 졸업자들을 위한 해당 지역 주립대 자동 입학 허가제로 SAT 성적과 상관 없이 고등학교 상위 10% 성적(이후 7%로 변경)의 졸업생에게는 자동 입학 허가. 제도 도입 후 인종적, 사회경제적 다양성 증가
 - 기타 6개 주에서는 저소득층의 대학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저소득, 소수인종 지역의 고등학교와 협력 체결. 이를 통해 지역 입학 센터, 저소득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 진학 모집, 전문대생의 4년제 편입 지원, 대학 예비 수업과 대학 학점 인정 고교 수업의 재정 지원
 -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개 주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의 4년제 대학 편입을 장려하기 위해 UC 계열 대학이 편입생 수용률을 50% 확대. 이 정책으로 '08-09년에 이르러 UC 계열 캠퍼스의 신입생 1/4 이상이 커뮤니티 컬리지 편입생
 - 상기 전형을 통해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유사한 학점 및 졸업률을 보임

□ 대입 전형 개선을 통한 노력

○ 공정성을 반영한 SAT 재설계

- 미국 수능형 시험 SAT를 설계하는 대학 협의회(College of Board)는 학생들의 SAT·점수가 가구소득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점에 주목하여 고소득, 고학력 부모의 백인 자녀들이 고득점을 보이는 essay 영역을 16'년 의무가 아닌 선택 응시제로 바꾸고 essay 유형 수정
- 대학 협의회장 David Coleman은 “사교육업체가 학부모들에게 비싼 사교육을 받아야만 SAT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고 회유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³¹⁾고 말하며 사교육 대체를 위해 온라인 강의 플랫폼 Khan Academy³²⁾ 와 협력을 맺고 학생들에게 무료 온라인 SAT 강의 제공

○ Non-SAT movement

- ‘05년부터 미국 대학에서는 SAT 점수와 가구소득, 고교 수준, 인종 등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연구가 축적되자 이를 주목한 입학사정관들이 SAT의 평가기준으로의 공정성을 고려, 대입 전형에서 SAT를 반영하지 않거나 선택형 제출(non-sat/optional)로 바꾸는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
- ‘18년 10월 기준, 미국의 1022개 대학이 SAT 점수를 선택형 제출로 전환하였으며³³⁾ ’18년 U.S. News & World report 3위인 시카고대 학이 이에 동참하며 파란을 일으킴³⁴⁾. 하버드, 프린스턴, 브라운 등 기타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SAT의 essay 영역을 선택 제출로 전환
- SAT의 대체 자료로 고교 시절 에세이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 포괄적 입학사정(wholistic review) 제도 등을 통해 평가

31) ‘SAT to drop essay requirement and return to top score of 1600 in redesign of admission test’, 워싱턴포스트, 2014. 3.5

32) 2008년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 Salman Khan이 시작한 비영리 기반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 12개국어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전세계 1억 명 가량의 학습자 이용, 구글, 빌게이츠멜린다 재단 등의 후원을 받았으며, 20시간의 SAT 강의를 수료한 학생들이 115점 가량의 점수 상승을 보인 연구 결과가 있음

33) <http://www.FairTest.org>

34),36) ‘A shakeup in elite admissions:U-Chicago drops SAT.. ’, 워싱턴포스트, 2018.6.14

A shake-up in elite admissions: U-Chicago drops SAT/ACT testing requirement

The Test-Optional Surge



출처: 좌) 워싱턴포스트, 'A shakeup in elite admissions...', 2018.6.14
우) 뉴욕타임즈, 'The test-optional surge', 2015.10.28

* Non-SAT 도입 배경 관련 입학사정관들의 발언

“연구 결과 SAT 점수를 추가하면 학생의 대학 학업능력 예측도는 1-4% 밖에 더하지 못한다. 점수 안에 갇힌 선발로는 학생의 역량을 전인적으로 평가하는 포괄적 평가를 하지 못한다.”³⁵⁾

- Joseph Sores, Wake Forest 대학 사회학과 교수, <SAT Wars>저자

“학생들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존재다. 숫자로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전인적 평가를 하겠다. 시험이 전부(all and end-all)가 아니다. 조그만 시험 하나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일을 원치 않는다.”³⁶⁾

- James G. Nondorf 시카고대 입학처장

“학생들이 SAT나 ACT 점수가 자신의 학업적 역량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전반적인 학업성취, 과외 활동,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평가를 하겠다.”³⁷⁾

- Kay Bales, Ball 주립대학교 학생입학처장



> APPLY

At UChicago, you are more than your GPA or test score.

UChicago welcomes students from **all backgrounds**, and each application at UChicago goes through the same holistic review process. There's no one piece of information—academic and extracurricular records, essays, letters of recommendation, or SAT/ACT scores—that alone determines whether or not you would be a good fit for the College. Instead, we want you to, through your application, show us who you are in your own voice. What is your story? Why did you choose to pursue certain opportunities? What activities are most meaningful to you? The very best way to approach your UChicago application is to simply be yourself and write in your own voice. We care about you and who you really are, not what you think we want to see in an application.

APPLY —

- First-Year Applicants
- Application Plans
- First-Generation Applicants
- QuestBridge Applicants
- Home-Schooled Applicants

출처: <https://collegeadmissions.uchicago.edu/apply>

시카고대 입학 홈페이지에 기재된 학생 선발 철학:

“시카고 대학이 보는 여러분은 고교 내신 점수나 시험 성적 이상의 존재입니다. 모든 배경의 학생들을 환영하며 단 하나의 요소로가 아닌 포괄적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기 자신이 되어주십시오. 지원서에 대학이 보기 원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원문) At UChicago, you are more than your GPA or test score.

UChicago welcomes students from **all backgrounds**, and each application at UChicago goes through the same holistic review process..중략..Instead, we want you to, through your application, show us who you are in your own voice. What is your story? Why did you choose to pursue certain opportunities? What activities are most meaningful to you? The very best way to approach your UChicago application is to simply be yourself and write in your own voice. We care about you and who you really are, not what you think we want to see in an application.

35) <http://theconversation.com/more-colleges-than-ever-have-test-optional-admissions-policies-and-thats-a-good-thing-89852>

37) <https://www.universitybusiness.com/article/Higher-eds-test-optional-movement-grows-significantly>

□ 정부의 노력

○ TRIO 프로그램³⁸⁾

- 미국 교육성 고등교육국(Office of Postsecondary Education)에서 취약 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며 8가지 세부 프로그램이 있음. 이중 Upward bound, Student Support Service, Talent Search 소개
- Upward bound : 저소득층 및 1세대 학생, 장애인, 보육원 출신 학생 등의 대학 진학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1965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에 법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수학, 과학, 작문, 문학 및 외국어 등의 강의교습, 상담, 멘토링, 문화 프로그램, 산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 '18년 기준 \$3억5천의 예산으로 7만 명의 학생들이 수혜³⁹⁾
- Student Support Service : 취약계층 학생들의 진학 후 대학 진학 후의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학업 지도, 강의 수강 상담, 각종 외부 장학금 안내, 장학금 신청 안내, 대학원 진학 상담 등을 제공. '13-14년 \$2억의 예산 규모로 19만 명 가량의 학생들 수혜
- Talent search : 대학에 진학할 잠재력을 지닌 취약계층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20여년 역사의 프로그램. 11세-27세 사이 지원 가능하며 학업 지도, 진로 안내, 적성 검사, 상담, 멘토링, 워크샵, 대학 정보 안내, 중학교 중퇴자를 위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 안내. '18년 \$1억5천의 예산으로 30만 명 수혜

38)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pe/trio/index.html>

39) <https://www2.ed.gov/programs/trioupbound/funding.html>

1. 기회균형선발제의 지속적 확대

- 우리나라는 소외계층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방안으로 '09년부터 정원 외 특별전형 형태의 '기회균형선발제'를 도입, 농어촌 및 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발해옴. 연도별 입학정원의 11%까지 선발할 수 있으나 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왔으며 수년간 6% 안팎 답보 중
- 2021학년 대입부터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하기로 명시한 교육부의 발표는 고무적이나 비율 확대에 관한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음. 최근 5년간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하는 주요 대학의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선발 비율은 전체 신입생의 1%-2% 내외에 불과 (아래 표 참조)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농어촌	기초수급	농어촌	기초수급	농어촌	기초수급	농어촌	기초수급	농어촌	기초수급
4년제 대학	3.1%	1.4%	2.8%	1.2%	2.7%	1.2%	2.7%	1.2%	2.7%	1.3%
고려대학교	3.0%	1.8%	2.6%	1.5%	2.5%	1.4%	2.5%	1.4%	2.5%	1.5%
서강대학교	3.6%	2.2%	2.9%	1.5%	2.8%	1.4%	2.6%	1.3%	2.7%	1.4%
서울대학교	2.8%	2.8%	2.1%	2.7%	2.4%	2.4%	2.4%	2.4%	2.3%	2.3%
성균관대학교	3.2%	1.3%	2.5%	1.4%	2.4%	1.5%	2.4%	1.5%	2.4%	1.4%
연세대학교	2.3%	2.4%	2.0%	2.0%	2.0%	2.0%	2.0%	2.0%	2.0%	2.0%
이화여자대학교	3.5%	0.9%	3.3%	0.7%	3.2%	0.7%	3.1%	0.8%	3.2%	0.7%
중앙대학교	3.1%	2.6%	2.7%	1.9%	2.3%	1.8%	2.4%	1.7%	2.4%	1.6%
포항공과대학교	-	-	-	-	2.1%	2.1%	1.5%	1.5%	1.5%	1.5%
한양대학교	3.1%	1.5%	2.2%	1.3%	2.2%	1.3%	2.2%	1.3%	2.1%	1.2%

출처: '18년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

[표 8] 최근 5년 간 농어촌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전형 모집비율

※ 특별전형 모집인원 상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 농어촌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입학정원 대비 4%를 초과할 수 없음

○ 농어촌 특별전형,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특별전형 모집인원 합계는 입학정원 대비 5.5%를 초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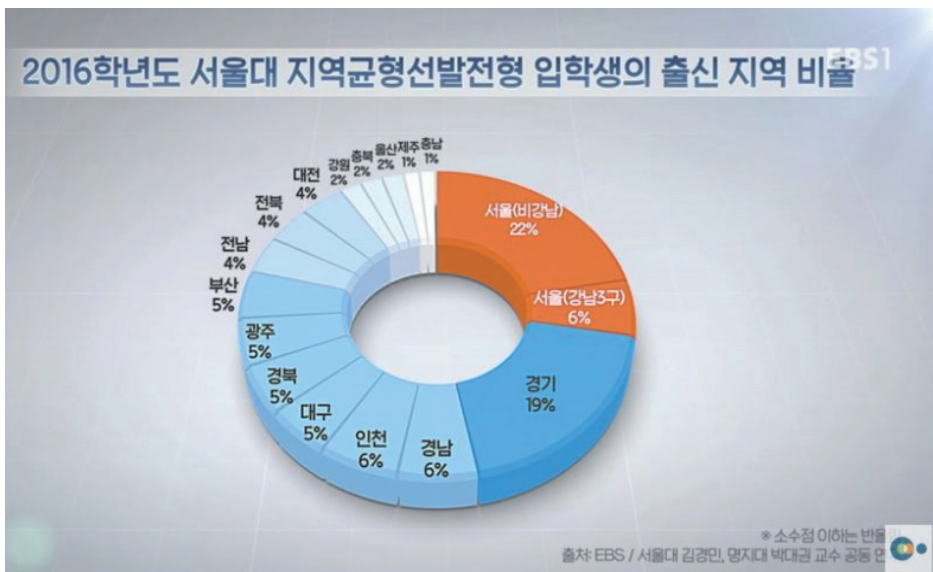
- 앞서 살펴본 국내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사교육 격차, 특목고와 상위권 대학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소득층 자녀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고등교육 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선발 비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사회의 기득권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상위권대학과 비상위권 대학 졸업생 간의 임금 격차가 큰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상위권대학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무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학교명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 미파악	신청자 합계	재학생	재학생 중 기초-8분위 위학생수 (비율)	재학생 중 9-10분위 학생 추정 비율
서울대	2015-1	207	771	575	398	303	282	273	341	495	639	1,654	451	6,389	16,511	3,645 (22.1%)	77.9%
	2016-1	217	898	657	461	324	340	312	399	515	735	2,485	240	7,583	16,511	4,123 (25.0%)	75.0%
고려대	2015-1	133	1,004	862	601	463	393	439	530	737	980	3,320	909	10,371	20,254	5,162 (25.5%)	74.5%
	2016-1	133	1,004	862	601	463	393	439	530	737	980	3,320	909	10,371	20,416	5,162 (25.3%)	74.7%
연세대	2015-1	433	962	728	502	410	330	370	432	563	745	1,942	632	8,049	19,546	4,730 (24.2%)	75.8%
	2016-1	417	1,131	852	558	422	367	381	479	651	804	2,431	368	8,861	19,465	5,258 (27.0%)	73.0%
성균관 대	2015-1	93	1,007	804	590	376	386	410	536	629	767	1,586	514	7,698	19,357	4,831 (25.0%)	75.0%
	2016-1	121	1,116	848	580	470	394	442	511	620	798	1,786	278	7,964	19,224	5,102 (26.5%)	73.5%
서강대	2015-1	107	447	375	229	183	165	188	209	357	445	1,231	439	4,375	8,001	2,260 (28.2%)	71.8%
	2016-1	110	495	361	228	207	188	181	222	311	381	1,010	149	3,843	7,982	2,303 (28.8%)	71.2%
한양대	2015-1	184	972	751	519	396	330	345	456	509	657	1,643	430	7,192	15,269	4,462 (29.2%)	70.8%
	2016-1	210	1,044	895	593	427	419	396	496	601	712	1,718	314	7,825	15,499	5,081 (32.8%)	67.2%

출처 : 교육격차 실태에 관한 실증적 자료 조사, 2018

[표 9] 서울 주요 6개 대학교 재학생 소득분위 비율

- 국공립대의 경우에도 사회적 격차 해소라는 공공성 가치를 앞장서서 실현해야 하나 지난 12년 간('07-'18) 서울대의 전체 합격자 수를 보면 경기도와 서울에서 합격생이 크게 늘은 반면 다른 지역은 급감하였고, 수시 합격자 중 강남구 출신은 '07년 대비 '18년 2배, 서초구는 거의 3배로 상승⁴⁰⁾.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제에서 마저 '13-'17년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교 졸업생이 절반을 넘어⁴¹⁾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공공적 가치가 외면당해왔음



출처: EBS 다큐 대학입시의 진실, 2017.5

[그림 8] '16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 출신 지역 비율

40) 12년 사이 경기도는 서울대 합격자가 484명에서 720명으로 236명 증가, 서울은 2018년 1258명으로 2017년보다 50명 증가했다. 반면 부산(91명), 대구(80명), 경남(41명), 충북(28명), 광주(27명) 등 비수도권은 크게 줄었으며 2007년 수시 합격자 중 강남구 출신은 8%였는데 2018년 15.7%로 2배가 됐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4.9%에서 11.7%로 증가폭이 더욱 컸다.

출처: "SKY캐슬처럼 실제 SKY 합격자에 고소득층 자녀 많아" - 중앙일보, 2019.01.06

41) "서울대 말로만 '지역균형선발'... 선발학생 절반 이상 서울·수도권", 한겨레, 2017.9.27

2. 진정한 공정성의 출발선 재고

- 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은 대입 선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 및 지역, 환경의 격차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려하는 공정성에 관한 문제 의식 부족
- SAT 시험 구조와 영역을 변경하고 제출 여부마저 선택권을 주는 과감한 대입 개편과 SES 가중치 선발 등으로 기울어진 출발선을 보완하는 미국의 공정성에 관한 의식 수준과, 미국보다 심한 사교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업 성취 중심, 점수 위주의 정시 2-30%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의식 수준 차이를 돌아보고 대입의 진정한 공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음
- 학생의 잠재력과 불리한 환경에서의 역경 극복 능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미국 입학사정의 기준을 참조, 기울어진 출발선을 직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은 평등은 공정한 기회를 모두에게 부여하는 사회가 아니며, 불평등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만을 놓고 평가하는 행위도 공정하지 않으므로 기회와 과정에서 유실된 부분을 보완하는 현재보다 유연하고 다각적인 소외계층 선발 기준 및 제도 필요

3. 조기 발굴, 양성 및 지원 제도

- 미국 사례의 경우 정부, 대학, 민간단체 등이 취약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와 관련하여 조기부터 지원을 제공하며 (엄격한 선별적 발굴보다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전폭적 지원) 입시부터 취업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다수
- 내용적인 면에서도 단순한 재정 또는 학업 지원 수준에서 그치지 않으며 소외계층의 취약한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여 멘토링, 문화 활동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시야를 넓혀주는 실질적, 종합적 서비스 제공
- 대학 진학 후에도 지속적 관리,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 국내에서도 취약계층 학생들의 빈약한 사회적 자본을 보충할 각종 멘토링 및 지도 강화, 학부모 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가정교육 지원팀 인재 육성 등을 실행하고 시범 운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1수업2교사제⁴²⁾의 도입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기초학력보장법을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음
- '18년부터 처음 시작된 교육부의 국내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인 꿈사다리 장학제도⁴³⁾는 연간 3백 명 선발로, 국내 전체 중학생 수('18년 약 133만)의 약 0.02%에 불과
- 국내 대학은 기회균형선발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사후 지원 프로그램이 취약하거나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17년에야 시작된 서울대학교의 서브라임 학습 공동체⁴⁴⁾ 등이 있으나 낙인효과를 배제한 입학 이후의 학업 및 심리적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제도 강화 필요

4. 성공경로의 다양화

- 모두가 한 방향으로 상위권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경로를 벗어나 개별적 적성과 관심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별화 추진
-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할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한 방향, 다만 고교 절대평가제와 대학 측의 변별력에 대한 집착 완화를 동반해야 성공적 정착 가능
- OECD PISA 2012 보고서를 통해 입증된,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저하시키는 수준별 학교,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자사고, 일반고 등의 분리 교육 금지

42) 서울도 '1수업2교사제' 초등 2학년에 시범운영, 매일신문, 2019.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571054>

43) 교육부의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을 조기에 선발하여 장학금(월 30만원 이상), 교육캠프 등 맞춤형 교육 지원 * 법정 저소득층(기초수급, 한부모, 법정 차상위) ※ 매년 **중1 300명(일반·예술·체육) 선발, 중2~고3까지 5년간 지원**

44) <https://ctl.snu.ac.kr/ko/learning/sublime/20>

5. 기타

-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등 사교육 격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공고한 대학 서열, 학벌과 임금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해결해야 교육격차 완화

IV 결론

- 지나친 경제 사회 양극화 및 교육 격차가 존속되는 사회는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불평등도가 높은 사회 → 사회적 신뢰, 네트워크, 공감 능력 파괴, 구성원들의 위화감 및 박탈감 증가 → 사회 통합 저해, 사회 갈등 증가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물림되는 부 또는 빈곤으로 계층 고착화 → 사회적 특권층 강화와 약자들의 목소리 약화 → 사회구조 왜곡, 민주주의의 본질적 훼손
 - 경제적 측면에서도 사회 전체의 성장 잠재력 저하
- 부유층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무한 교육경쟁은 방임하고 취약계층의 기초 학력 결손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는 교육 정책은 국가가 불평등한 사회를 방치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위기를 막지 못함

2019.01.02. 한국일보 보도

〈'파편사회'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⁴⁵⁾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환경이나 끊어진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타인을 받아들이려 여유가 없고, 사회적 분노나 울분이 늘 깔려 있기 때문에 어딘가 표출해야 하는 사회, 이것이 결국 사회적 약자를 향해 표출되는 사회는 반드시 위기에 처한다. 과거 비극을 겪은 많은 나라의 소위 '사고'들이 다 이렇게 시작됐다. 강력한 위험 신호이다.”

- 계층 고착화 방지와 초저출산 시대에 인적자원의 극대화를 위해 소외계층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 기회를 강화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및 진학 전후와 재학 중의 지원 제도를 다각화해야 함

45) '시민 이해관계를 대변 못하는 거대...' 한국일보 파편사회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19.01.02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270646768217?NClass=SP02>

• 참고문헌 •

- 김경근,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5권 제3호, 2005, pp.1-27.
- 김영철,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KDI, 2011.12.31.
- 김영철, 대학 진학 격차의 확대와 기회형평성 제고 방안, KDI, 2012.11.5.
- 김위정 외, 경기도교육격차지표 개발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2015.4
- 김창환 외,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I) : 교육정의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2
- 김홍원,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12.5
- 김홍원,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지표 및 지수 개발 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08
- 김희삼, 사회 이동성과 교육격차: 진단과 처방,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정책연합 학술대회, 2017, pp.309-334
- 마강래, 저출산 문제와 교육 실태: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2016. 12
- 박경호, 교육격차 실태 종합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7
- 박주호 외, 교육격차 실증 연구의 체계적 분석,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2018.2
- 송지훈 외, 교육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2018.5
- 엄문영 외, 교육복지 투자 및 실태 및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4
- 여유진,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28집 제2호, 2008
- 오호영, 대학서열화와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8, No. 2, pp. 8~13, 2015.3
- 오호영,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과제, 청년일자리정책 포럼 자료집, 2015
- 장수명, 대학교육의 경제학, 노동정책 연구, pp.47-79, 2002
- 최필선·민인식,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3호, 2015..9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2017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발표, 2017.09.27
- 동아일보, “2030 여전히 학벌·학력 때문에 취업 어려워”, 2018.5.1
- 매일경제, “개천 용` 막는 교육 양극화...국가 역동성 훼손 악순환“, 2017.3.14

- 매일경제, 금수저 對 흙수저...교육격차 더 벌어졌다, 매일경제, 2018.09.30
- 매일신문, “서울도 '1수업2교사제' 초등 2학년에 시범운영”, 2019.1.7
- 중앙일보, “기업 인사담당자 72% 채용시 출신대학 영향 미쳐, 2017.10
- 중앙일보, “SKY캐슬처럼 실제 SKY 합격자에 고소득층 자녀 많아” 2019.01.06
- 한겨레, “서울대 말로만 '지역균형선발'... 선발학생 절반 이상 서울·수도권”, 2017.9.27
- 한국일보, “시민 이해관계를 대변 못하는 거대 양당이 사회 갈등 키워”, 2019. 01.02.
- A shake-up in elite admissions: U-Chicago drops SAT/ACT testing requirement. Washington Post. 2018.6. 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education/a-shake-up-in-elite-admissions-u-chicago-drops-satact-testing-requirement/2018/06/13/442a5e14-6efd-11e8-bd50-b80389a4e569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747d6ccd70d9
- Higher ed's test-optional movement grows significantly. 2018.9. <https://www.universitybusiness.com/article/Higher-eds-test-optional-movement-grows-significantly>
- SAT to drop essay requirement and return to top score of 1600 in redesign of admission test. Washington Post. 2014.3. 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education/sat-to-drop-essay-requirement-and-return-to-top-score-of-1600-in-redesign-of-admission-test/2014/03/05/2aa9eee4-a46a-11e3-8466-d34c451760b9_story.html
- The Test-Optional Surge. New York Times. 2015.10.28. <https://www.nytimes.com/2015/11/01/education/edlife/the-test-optional-surge.html>
- True Merit: Ensuring Our Brightest Students Have Access to Our Best Colleges and Universities. Jack Kent Cooke Foundation. 2016.1. <https://www.jkcf.org/research/true-merit-ensuring-our-brightest-students-have-access-to-our-best-colleges-and-universities/>
- US Department of Education, Federal TRIO programs.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pe/trio/index.html>
- US Department of Education, Upward program, funding status. <https://www2.ed.gov/programs/trioupbound/funding.html>

URL Link

<https://admission.princeton.edu/how-apply/admission-statistics>

<http://climbinitiative.org>

<http://www2.cuny.edu/academics/academic-programs/seek-college-discovery/>

http://www2.cuny.edu/wp-content/uploads/sites/4/page-assets/academics/academic-programs/seek-college-discovery/SEEK-CD-2015-16-annual-report_WEB.pdf

<http://FairTest.org>

<https://fgliconsortium.org/>

<https://highered.aspeninstitute.org/american-talent-initiative/>

<http://opportunityinsights.org>

<https://pupp.princeton.edu/>

<https://seo-usa.org>

<https://sifp.princeton.edu/>

교육 격차 해소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제고를 중심으로